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간 관계 분석

김대중* · 경종수** · 정성훈***

A Correlation Analysis among Regional Industrial Diversification, Job Creat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Dae-Jung Kim* · Jong-Soo Kyung** · Sung-Hoon Jung***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오자이브지수, 국가경제평균법, Birch 고용성장지수, 지역경쟁력효과

Abstract :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diversity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employmentability and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consequentl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hole industry such as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in Chungnam Province, the existing strategic implementation on the employmentability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out the policy on the existing specialized industries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However, under the condition that danger and stability in each industry are fluctuat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re varied, the detailed analysis and rapid policy prescription on the primary and tertiary industry are required. Along with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effectiveness, regional policy are simultaneously conducted along with industrial, technological and regional development's policies while consider-

* 한국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Guest Researcher, Korea Policies Institute, ripdj@hanmail.net)

**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Sunmoon University, jskyung@sunmoon.ac.kr)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hjung@kangwon.ac.kr)

ing complex and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industry and rapid changing the global market conditions. Secondly, with respect to equity, regional policy is needed to implement by reducing the socio-economic gap across regions and mixing regional and sectoral policies along with regional and local uniqueness.

Key Words : Ogive index, national average approach, Birch employment growth index, regional competition component

1. 서론

우리나라는 지역산업정책의 육성을 위해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지역별로 육성하여왔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갑성·송영필, 1997). 즉 특화산업의 육성이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정책에 있어 특정 산업의 집중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 하나의 정책 목표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집중 육성되었던 섬유와 신발산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쇠퇴하여 해당 특화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와 부산의 지역경제가 과거에 비해 침체된바 있다. 충남은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이상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예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특화산업 육성은 산업주기 또는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정책에 있어 선진 국가에서는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안정성(stability)도 주요한 정책목표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화산업 육성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특화산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쇠퇴할 경우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가 너무 단순할 경우 즉, 단선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칫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의 명암이 갈릴 우려도 없지 않다. 한 지역내에서 주력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산업의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수의 주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성장성 측면이나 국가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도 바람직하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수반된다(김갑성·송영필, 1997).

따라서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제기되어온 산업구조의 다양성(diversity)에 대해 현재까지 지역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사실들을 살펴보고, 최근의 우리나라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성 수준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의 다양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산업, 기술, 지역발전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더욱 전략적·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그 위상과 정책조합이 수시로 바뀌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장기적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게 평가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지역정책을 시도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어왔다(장재홍 등, 2012).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이에 기초하여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산업, 기술, 지역발전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역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정책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부터다. 당시 미국 전체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변창욱, 2005).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있고, 실증연구들의 결과들도 상반되게 나타난다.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에서는 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특화전략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고, 지역경제 차원의 실증 분석을 통하여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류수열·최기홍·윤성민, 2013). 지역경제에서 산업특화전략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는

Tress(1938)의 연구는 영국 및 웨일즈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산업구조 다양성이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은 약한 반면 전문화의 효율을 낮추어 손실이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경제학자들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될수록 지역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덜 민감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지역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Nourse, 1968; Richardson, 1969). 지역경제가 소수의 특화 산업에 의존하면 경기변동 과정에서 주력산업의 수요 감소에 매우 취약할 것이다(Kort, 1981).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정책의 변화,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 무역장벽의 강화, 생산기술의 변화, 환경규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사건들은 소수의 특화산업에 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경제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활용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한 만큼 직업의 종류와 고용의 기회도 다양할 것이고 임금이 높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견할 가능성도 훨씬 많을 것이다. 즉 다양성이 높은 지역경제일수록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므로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류수열·최기홍·윤성민, 2013).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다양할수록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실증연구들로 McLaughlin(1930)은 다양한 산업의 생산과 교환의 형태가 존재할수록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nroy(1975)는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Kort(1981)는 한 지역 내 산업의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급격한 경제적 쇠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imon(1988)은 고용이 산업 전체적으로 고

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마찰적 실업이 더 낮다는 것을 밝혀냈고, Diamond·Simon(1990)은 미국 43개 도시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지역경제 산업구조가 소수 산업에 편중될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반면에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지역경제 안정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로서 Florence(1948)는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지역경제 안정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면서 전문화를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Mizuno, Mizutani and Nakayama(2006)는 산업구조 다양성의 증가가 고용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대중(2010)의 연구에서는 충남의 전략산업별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보산업이 특화도의 증가율도 크고 동시에 급격한 다양성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산·탕정 지역에 삼성전자가 이전하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집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향후 아산·탕정 지역에 산업구조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질 경우 지역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의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정책적 배경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부문별 정책들은 각 부문 고유의 정책 목표를 준거로 기획, 추진된다. 산업정책은 산업육성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발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수단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

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산업, 기술, 지역발전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전략적·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김대중, 2014).

지역정책이란 중앙정부 또는 상위 행정조직이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발전 촉진을 위해 기획, 추진, 평가하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책 중 중앙정부 고유의 영역은 지역 간 격차 해소 즉 형평성 제고에 있다. 지역별 발전 촉진이라는 또 다른 목표는 중앙정부의 부문별 정책을 이용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지역정책의 보다 본질적인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문별 정책들은 각 부문 고유의 정책 목표를 준거로 기획, 추진된다. 산업정책은 산업육성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 반면 지역정책은 정책 기획의 최우선 준거가 '지역'(공간단위)이다. 공간적 정책 차별화의 범주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과 지역별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수단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간 중심의 정책 패키지 또는 클러스터관점이 핵심이다(장재홍 등, 2012: 77-79).

지역산업정책은 용어 그대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통상적으로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정책이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의 성격을 동일한 비중만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역산업정책의 사례를 보면,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의 비중은 국가별, 시기별, 정책기조별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지역정책의 목표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완화이며, 지역 간 격차에서는 특히 소득격차와 성장률의 격차가 중점적 관심대상이며, 그 근저에는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에 산업정책은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다(김영수 등, 2007: 38).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의미로 변화였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 관련활동의 일부로서 과학기술지식을 확장 또는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책이란 중앙정부가 한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마련, 지역간 개발격차의 시정, 그리고 지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로 각종 지원이나 규제수단을 제시하고,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재배분한다. 일반적인 논의에서 지역개발정책은 '국가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정책'만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자원개발, 산업입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물적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제반 명시적인 공간정책을 의미한다(김용웅·차미숙, 1998: 31).

장재홍 등(2012)은 지역 간 격차의 완화 또는 해소가 지역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고, 그 격차의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의 자원 재배분, 즉 자산과 소득의 지역 간 단순 이전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가운데 지역 간 형평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수단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 지역과학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고,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관련 국책연구소에서 추진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나 성과정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각각의 정책 부문별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정책적 연계에 대한 고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역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해 봄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지역이며, 분석기간은 2011년과 2000년을 비교분석 한다. 산업분석범위는 전체 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는 이유는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즉, 산업별 특성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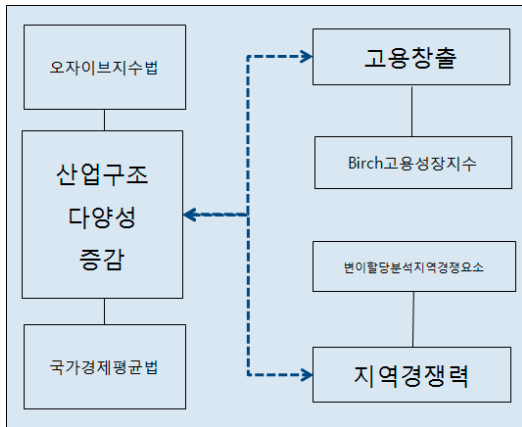


그림 1. 산업구조 다양성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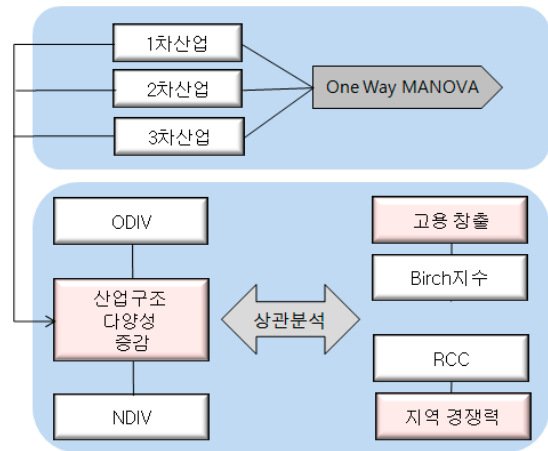


그림 2. 실증실증분석의 틀

분석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산업구조 분석과정으로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분석한다. 과정에서 Birch 고용성장지수는 지역내 비교만을 통해 산출된 지수임을 감안하여 산업구조 다양성은 같은 맥락의 오자이브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변이할당분석 지역경쟁요소가 전국과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된 지수이므로 같은 성격의 국가경제평균법을 사용한다.

2단계는 전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1차·2차·3차 산업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구분(요인)을 1차·2차·3차(요인수준) 산업으로 나누고 종속변수인 산업구조 다양성(ODIV 및 NDIV)의 증감과 지역고용창출(Birch) 및 지역경쟁력(RCC)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다변량분산분석(one-way MANOVA)을 통해 알아본다. 이후 산업별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에 대한 두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산업별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2) 분석자료

연구자료는 통계청(KOSIS) 사업체조사를 이용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digit) 코드 1,145개(2011년 현재 전국은 1,129개 업종 존재)를 모집단으로 하여 1단계 분석을 한다. 2단계 분석에서의 산업분류는 전체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분류하되, 1차산업은 농어업 및 광업 중심으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부터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90)까지 총 5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도축업’(10110)부터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33999)까지 총 461개 업종이다. 3차산업은 1차·2차산업외의 ‘원자력 발전업’(35111)부터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99009)까지 총 633개 업종으로 산업분류를 하였다.

3) 연구방법

(1) 산업구조 다양성 분석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단순 비율접근법(simple percentage approach), 오자이브 지수(Ogive index), 국가경제평균법(national average approach), 최소요건접근법(minimum requirement approach), 포트폴리오접근법(industrial portfolio approach), 엔트로피극대화법(en-

tropy maximization), 허핀달 지수, DS지수(Dixit-Stiglitz index)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다양성의 기준(norm)을 가지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오자이브지수와 국가경제평균법을 사용한다.

Ogive지수는 한 지역내에 모든 산업이 균등한 비율로 배치되었을 경우를 이상적인 다양화상태라고 가정하고 실제 각 산업별 고용자수와 편차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지역의 Ogive지수 값이 작을수록 그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수의 값이 크다는 것은 편차가 큰 것을 나타내며 소수의 특정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ODiv_j = \sum_{i=1}^I \frac{\left[\left(\frac{e_{ji}}{e_j} \right) - \frac{1}{I} \right]^{\rho}}{\frac{1}{I}} \quad \text{식 (1)}$$

ODiv_j: *j*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e_{ji}: *j*지역 *i*산업의 고용자수
e_j: *j*지역 총 고용자수
I: 산업의수
 ※ ρ의 값은 2로 취함.

국가경제평균법은 국가의 산업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전국 시도간 비교를 할 때나 비교할 상대 변수가 전국과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된 지수 등에 사용하고, 오자이브 지수는 한 지역내에 모든 산업이 균등한 비율로 배치되었을 경우를 이상적인 다양화상태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충남도내 시군별 분석이나 비교할 상대 변수가 지역내 비교만을 통한 산출된 지수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 국가경제평균법으로 구해진 지수는 국가의 산업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가정하며, Ogive지수와 같이 절대값이 클수록 국가평균과 편차가 큰 것을 뜻하므로 산업의

편중현상이 큰 것을 나타낸다.

$$MDIV_j = \sum_{i=1}^I \frac{\left[\left(\frac{e_{ji}}{e_j} \right) - \frac{e_i}{e} \right]^{\rho}}{\frac{e_i}{e}} \quad \text{식 (2)}$$

MDIV_j: *j*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
e_{ji}: *j*지역 *i*산업의 총 고용자수
e_j: *j*지역 총 고용자수
e_i: 전국의 *i*산업 총고용자수
e: 전국의 총고용자수
I: 산업의수
 ※ ρ의 값은 2로 취함.

(2) 고용성장 분석

지역의 고용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고용창출량과 고용증가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Birch 고용성장지수(Birch employment growth index)를 사용한다.

$$M_{ij} = (X_{jit} - X_{j0}) \times \left(\frac{X_{jit}}{X_{j0}} \right) \quad \text{식 (3)}$$

M_{ij}: *j*지역 *i*산업의 고용성장지수
X_{jit}: *t*연도 *j*지역 *i*산업 종업원수
X_{j0}: 기준년도 *j*지역 *i*산업 종업원수

(3) 지역경쟁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역경쟁요소(regional competition component: RCC)를 지역 고유의 경쟁력으로 보고,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변이할당분석기법은 특정 경제실적 변수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지역의 경쟁력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특성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즉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지역의 특정 경제실적 변화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지역의 고유한 입지상 이점에 귀속된다고 간주되는 지역경쟁요소

는 벤치마킹대상 지역을 이용해서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Begg et al.(2002)은 지역경쟁요소가 다소 세련도가 떨어지는 하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변필성·김광익·김태환,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역경쟁요소를 지역 고유의 경쟁력으로 보고자 한다.

$$RCC_{ij} = E_{ij0} \times \left(\frac{E_{ijt}}{E_{ij0}} - \frac{E_{it}}{E_{i0}} \right) \quad \text{식 (4)}$$

- E_0 : 전국 초기연도(0) 총고용
- E_{i0} : 전국 초기연도 i 산업고용
- E_{ij0} : j 지역 초기연도 i 산업고용
- E_t : 전국 t 연도 총고용
- E_{it} : 전국 t 연도 i 산업고용
- E_{ijt} : j 지역 t 연도 i 산업고용

4. 실증분석 결과

1) 산업구조분석

충남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1차산업에 대한 사업체수는 157개 줄었고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감소폭이 1.6%p 크게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957명 감소했고 연평균증가율은 전

국에 비해 2.2%p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2차산업에 대한 사업체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0.6%p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증가폭이 4.5%p 크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차산업에 대한 사업체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감소폭이 0.2%p 크게 나타났고,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은 전국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Ogive 지수 분석결과, 충남은 2000년에 비해 2011년의 산업구조가 1차·3차산업은 다양해졌고, 2차산업은 산업구조 다양성이 감소했다. Birch 고용성장지수(기준년도: 2000년, 비교년도: 2011년)는 1차 산업만 감소하였고, 2차·3차산업은 증가했다.

국가경제평균법에 의한 충남의 산업구조다양성 지수 분석결과 2000년에 비해 2011년의 산업구조 역시 Ogive 지수 분석결과와 같이 1차·3차 산업은 다양해졌고, 2차 산업은 산업구조 다양성이 줄

표 2. 산업별 충남 ODIV증감 및 Birch지수

구분	산업구조 다양성 증감			고용창출
	충남 Ogive지수			
산업 분류	2000년	2011년	증감*	Birch 고용 성장지수 (00-11)
1차산업	-23	-28	5	-763
2차산업	-73	-53	-20	194837
3차산업	281	203	78	201294

*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수로 계산

표 1. 산업별 기본자료 현황

구분	2000				2011				CAGR(%)				GAP(%p)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차산업	5,085	77,206	515	4,717	4,238	48,115	358	3,760	-1.6	-4.2	-3.3	-2.0	-1.6	2.2
2차산업	307,774	3,261,196	10,719	138,921	340,898	3,585,262	12,636	248,043	0.9	0.9	1.5	5.4	0.6	4.5
3차산업	2,700,558	10,265,872	107,915	353,328	3,124,887	14,457,593	127,512	496,559	1.3	3.2	1.5	3.1	0.2	-0.0

표 3. 산업별 총남 NDIV 증감과 RCC

구분	산업구조 다양성 증감			지역경쟁력
	총남 국가경제평균법			
산업분류	2000년	2011년	증감*	변이할당 지역경쟁요소 ('00-'11)
	1차산업	82	37	
2차산업	118	190	-72	95317
3차산업	-67	-119	53	-1039

*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수로 계산

었다. 지역경쟁력(기준년도: 2000년, 비교년도: 2011년)은 1차·2차 산업은 높아졌고 3차 산업은 떨어졌다.

2) 통계분석 결과

(1) 산업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산업구분(요인)을 1차·2차·3차의 요인수준으로 산업별 산업구조를 나누고 종속변수인 다양성(ODIV 및 NDIV)과 지역고용창출(Birch 고용성장지수) 및 지역경쟁력(변이할당분석 지역경쟁요소)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다변량분산분석(one-way MANOVA)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1차산업은 총 51개 업종중 결측치 17개를 제외한 34개를 분석하고, 2차산업은 총 461개 업종중 결측치 68개를 제외한 393개를 분석하며, 3차산업은 총 633개 업종중 결측치 102개를 제외한 531개 업종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통계량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는 각 판별함수 변량들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적으로 계산되는 Wilks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램다값은 0.954이며, 이것을 F값으로 환산하면 5.641이 되고, 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평균벡터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켜 산업별로 ODIV증감, Birch지수, NDIV 증감 및 RCC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산업별 분석 기술통계량

산업별		M	SD	N
ODIV증감	1차산업	.1559	.31641	34
	2차산업	-.0529	1.77666	393
	3차산업	.1452	1.73109	531
	합계	.0643	1.72209	958
Birch	1차산업	52.0	315.4	34
	2차산업	11701.5	172997.3	393
	3차산업	1731.4	7282.5	531
	합계	5761.8	110963.8	958
NDIV증감	1차산업	1.3176	3.63680	34
	2차산업	-.1835	1.75012	393
	3차산업	.0991	.68629	531
	합계	.0264	1.43241	958
RCC	1차산업	-44.9	133.4	34
	2차산업	134.3	821.4	393
	3차산업	49.4	500.2	531
	합계	80.9	646.4	958

표 5. 산업별 분석 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P-value
절편	Pillai 트레이스	.043	10.796	.000
	Wilks의람다	.957	10.796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45	10.796	.000
	Roy의 최대근	.045	10.796	.000
산업별	Pillai 트레이스	.046	5.598	.000
	Wilks의람다	.954	5.641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48	5.684	.000
	Roy의 최대근	.044	10.580	.000

Scheffe의 통계량으로 계산된 사후검정을 통해 어느 독립변수의 평균이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ODIV증감, Birch지수 및 RCC는 산업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NDIV 증감은 유의수준 0.05에서 산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산업별 분석 다중비교

종속변수	(I)산업별	(J)산업별	평균차(I-J)	P-value
ODIV 증감	1차산업	2차산업	.2088	.794
		3차산업	.30447	.999
	2차산업	1차산업	.30767	.794
		3차산업	.11452	.224
	3차산업	1차산업	.30447	.999
		2차산업	.11452	.224
Birch	1차산업	2차산업	19837.1	.842
		3차산업	19630.7	.996
	2차산업	3차산업	19837.1	.842
		1차산업	7384.0	.402
	3차산업	1차산업	1679.4	.996
		2차산업	-9970.0	.402
NDIV 증감	1차산업	2차산업	1.5011*	.000
		3차산업	1.2186*	.000
	2차산업	3차산업	-1.5011*	.000
		1차산업	-.2825*	.011
	3차산업	1차산업	-1.2186*	.000
		2차산업	.2825*	.011
RCC	1차산업	2차산업	-179.3	.299
		3차산업	-94.3	.711
	2차산업	3차산업	179.3	.299
		1차산업	84.9	.142
	3차산업	1차산업	94.3	.711
		2차산업	-84.9	.142

* .05수준에서 평균차는 유의함

(2) 산업별 상관분석

산업별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에 대한 두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산업별로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1차 산업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에 대한 두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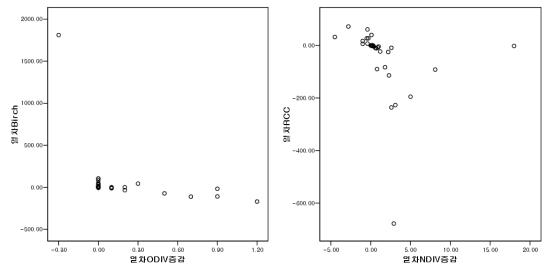


그림 3. 1차산업 산점도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8)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차 산업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에 대한 두 변수간의 상관분

표 7. 1차산업 ODIV증감 및 Birch지수 상관계수

		ODIV증감	Birch
O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378*
	유의확률(양쪽)		.027
	N		34
Birch	Pearson상관계수	-.378*	1
	유의확률(양쪽)	.027	
	N	34	34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8. 1차산업 NDIV 증감과 RCC간 상관계수

		NDIV증감	RCC
N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253
	유의확률(양쪽)		.148
	N		34
RCC	Pearson상관계수	-.253	1
	유의확률(양쪽)	.148	
	N	3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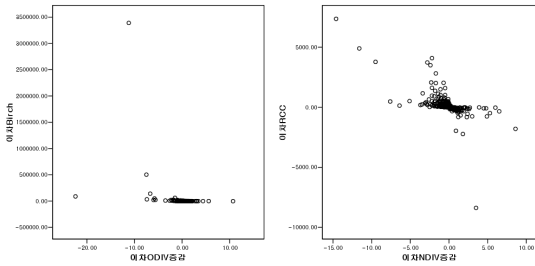


그림 4. 2차산업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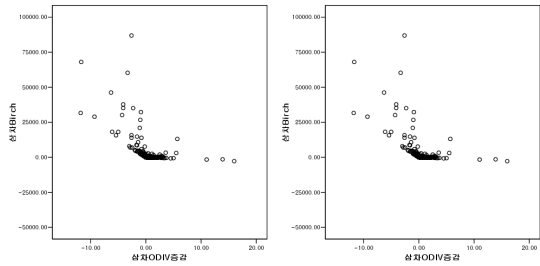


그림 5. 3차산업 산점도

석과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9)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651)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3차 산업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에 대한 두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52)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 2차산업 ODIV증감 및 Birch지수 상관계수

		ODIV증감	Birch
O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379**
	유의확률(양쪽)		.000
	N	393	393
Birch	Pearson상관계수	-.379**	1
	유의확률(양쪽)	.000	
	N	393	393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0. 2차산업 NDIV 증감과 RCC간 상관계수

		NDIV증감	RCC
N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651**
	유의확률(양쪽)		.000
	N	393	393
RCC	Pearson상관계수	-.651**	1
	유의확률(양쪽)	.000	
	N	393	393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61)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차산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전국적 추세에 따라 줄었지만, 산업구조가 다양해 졌고, 고용창출(Birch)은 감소하였지만, 지역경쟁력(RCC)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8)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차 산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폭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사업체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증가가 많았다. 산업구조 다양성(ODIV 및 NDIV)이 감소하였고, 고용창출(Birch)은 증가했으며, 지역경쟁력(RCC)은 높아졌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

표 11. 3차산업 ODIV증감 및 Birch지수 상관계수

		ODIV증감	Birch
O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520**
	유의확률(양쪽)		.000
	N	531	531
Birch	Pearson상관계수	-.520**	1
	유의확률(양쪽)	.000	
	N	531	531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2. 3차산업 NDIV 증감과 RCC간 상관계수

		NDIV증감	RCC
NDIV증감	Pearson상관계수	1	-.361**
	유의확률(양쪽)		.000
	N	531	531
RCC	Pearson상관계수	-.361**	1
	유의확률(양쪽)	.000	
	N	531	531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9)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651)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3차 산업은 사업체수 감소폭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종사자수는 전국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구조가 다양해 졌고, 고용창출(Birch)은 증가했으나, 전국대비 상대적인 지역경쟁력(RCC)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52)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61)를 가지고 있으

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대체로 전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을 유지내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지역단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지역경제정책적 시사점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세계화 추세에서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모델에서 탈피해서 지역단위가 핵심적 경제주체가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제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기존의 지역발전 모델과 접근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과 접근방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지역발전 정책구상

지역정책차원의 공간적 정책 차별화의 범주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과 지역별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 지원 규모의 차등화 즉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서로 다른 지역별 상황(regional profile)에 맞춘 정책조합(policy mix)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이제는 물리적 시설 중심의 대단위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과 관련된 정책 간 연계와 융합이 필요하다.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부문별 정책들은 각 부문 고유의 정책 목

표를 준거로 기획, 추진된다. 산업정책은 산업육성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발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 수단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산업, 기술, 지역발전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더욱 전략적·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개발정책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정책이 다루지 못하는 분야나 기존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영역을 갖는다. 다시 말해, 기존 정책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역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 융합정책 모델 (Regional Development Policy Mix Model)'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발전 융합정책 모형'은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하고 동시에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개발정책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정책이 다루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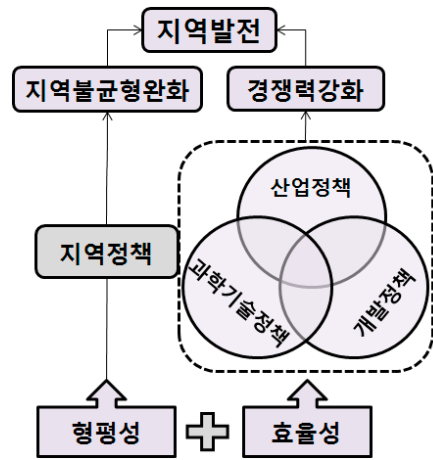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발전 융합정책 모델(김대중, 2014 참조)

분야나 기존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영역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제고 정책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무관한 지역 경쟁력강화 정책은 지역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그 공간적 대상이 지역이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최근의 지역정책의 변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방법 또는 전략의 중심이 종전의 직접적 격차 해소보다는 낙후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태적 균등화에서 동태적 수렴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장재홍 등, 2012: 77). 따라서 지역정책 차원의 낙후지역의 발전 잠재력 강화를 통한 동태적·우회적 수렴 정책으로 낙후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기획·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선진지역과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충남지역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산업을 1차·2차·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차 산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전국적 추세에 따라 줄었지만, 산업구조가 다양해 졌고, 고용창출(Birch)은 감소하였지만, 지역경쟁력(RCC)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8)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차 산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폭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사업체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증가가 많았다. 산업구조 다양성(ODIV 및 NDIV)이 감소하였고, 고용창출(Birch)은 증가했으며, 지역경쟁력(RCC)은 높아졌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79)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651)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3차 산업은 사업체수 감소폭은 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종사자수는 전국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구조가 다양해 졌고, 고용창출(Birch)은 증가했으나, 전국대비 상대적인 지역경쟁력(RCC)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구조 다양성(ODIV)의 증감과 고용창출(Birch지수)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52)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구조 다양성(NDIV)의 증감과 지역경쟁력(RCC)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361)를 가지고 있으

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대체로 전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을 유지내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지역단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세계화 추세에서 기존의 정책모델에서 탈피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하고 동시에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충남지역에 대한 관련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거시적인 연구대상 범위로 시도를 하였다. 향후 산업분야별 좀더 세밀한 미시적 접근뿐 아니라 공간적 접근 또한 시·군 단위까지 좀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갑성·송영필, 1997,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국토연구원, 2004, 공간분석기법, 서울: 아카데미 한울.

- 김대중, 2010, “테크노파크의 지역전략산업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충남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중, 2014, “고성장 산업군의 발굴 및 육성전략: 가젤산업에 대한 시론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5호, pp.2821-2830.
- 김대중·김학민, 2014,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17권 제2호, pp.1-14.
- 김대중·김태진, 2014,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 전략산업의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3호, pp.31-50.
- 김영수·김선배·오형나,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용웅·차미숙, 1998,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개발연구원.
- 류수열·최기홍·윤성민, 2013,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학회, pp.73-94.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6,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 변창욱, 2005,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안정성”,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pp.46-54.
- 변필성·김광익·김태환, 2005, “지역 경쟁력과 경제발전간의 관계: 변이할당분석기법의 고용성장예의 적용을 토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pp. 267-268.
- 장재홍·송하울·김찬준·김동수·변창욱·서정해·정준호, (2012).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 산업연구원.
- Begg, I., Moore B., & Altunbas, Y., 2002, “Long-run trends in the competitiveness of British cities,” in Begg, I. (ed.), *Urban Competitiveness: Policies for Dynamic Citie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pp.101-133.
- Conroy, M.E., 1975,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Regional Industrial Diversifica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41(3), pp.492-505.
- Diamond, Charles. A. and Simon, Curtis J., 1990,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the Return to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8, No.2 (Apr.), pp.175-201.
- Florence, P.S., 1948, *Investment, Location and Size of Plant*, Cambridge: Oxford University Press.
- Kort, John R., 1981, “Regional Economic Instability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U.S.,” *Land Economics* 57, pp.596-608.
- McLaughlin, G., 1930,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American Cit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4, pp. 131-149.
- Mizuno, K., Mizutani, F. and Nakayama, N., 2006, “Industrial Diversity and Metropolitan Unemployment Rat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0(1), pp.157-172.
- Nourse, H., 1968, *Reg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 Richardson, H.W., 1969, *Regional Economics*, New York: Praeger.
- Simon, Curtis J., 1988, “Frictional Unemployment and the Role of Industrial Divers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3, No.4(Nov.), pp. 715-728.
- Tress, R.C., 1938, “Unemployment and the Diversification of Industry,” *Manchester School*, 9, pp.140-152.
- 교신: 정성훈,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33-250-6691, 이메일: shjung@kangwon.ac.kr
- Correspondence: Sung-Hoon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 City, Gangwon Province, 200-701, Korea, Tel: 82-33-250-6691, E-mail: shjung@kangwon.ac.kr

최초투고일 2014년 10월 22일
수정일 2014년 11월 15일
최종접수일 2014년 11월 17일